

(경기도 파주군 금촌면
맥금 2리에서)



탁 아 일 지

오 정 애
(국립의료원 간호학교2학년)

1974년 7월 29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어제 부산하게 준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탁상침대에 누웠으나 잠은 좀체로 오지 않고 알지 못하는, 영롱하게 빛나는 눈동자들이 어른 거렸다. 아찔.

천날 잠을 잤는지 아니면 꿈속을 헤맸는지조차도 모르고 일어나보니 하늘이 흐리다. 마칩내 쏟아지는 비를 원망스레 쳐다보며 오후에는 그치겠지 하는 바람도 무시하고 비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비속을 뚫고 용감히 전진하기로 다짐하고 예정시간보다 늦게 3시 10분에 학교를 떠나서 간호협회에 도착했을 때 우리들의 물결은 마치 물에 갓 적셨다 나온 털이 많은 스피치 모양 같았다. 협회의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기로한 이화여대팀과 합류하여 협회차를 이용 맥금리에 도착했을 때는 4시가 훨씬 지나서였다. 차가 맥금리에 도착하니까 그마을 가족제회회장님 마을 부녀회장님과 이장님 그리고 마을 애들이 너댓명 모여서 짐을 옮긴다 하며 부산히 움직인다. 비록

크지는 못하나마 아담하게 지어진 맥금리 마을의 생명수를 발하는 맥금리교회를 대하니 호뭇한 마음이 앞선다. 여기를 우리의 숙소로 정하고 선생님 둘은 가셨다. 미리 우리를 4명은 보전간호담담지도 교수님으로부터 가정기록표 작성요령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보전소에 실습은 나가지 않았지만 여기서 몸소 보전간호실습을 하리라 생각하니 일석이조라는 옛말이 생각났다.

썹을 매달아 놓고 애들을 부르니 60여명의 애들이 호기심에 가득찬 눈초리로 웅기쭈기 교회로 모였다. 마을의 청년이 애들을 정돈시켜놓고 우리는 그 애들에게 대강 3가지의 유희를 하였는데 맑은 눈초리를 보이며 잘 따라한다. 이제밤의 그 빛나던 눈동자들과 오늘 지급 내앞에서 나를 쳐다보는 눈들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 그렇다 어제밤 나는 벌써 그들을 본 것이다. 그들은 내가 초면인지도 모르지만 내게는 구면인 것이다. 아동들을 보내고 간단히 빵식으로 저녁식사를 했다. 숙소의 문제는 다소 복잡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수고로 오후 늦게 저녁 7시 넘어서 도



본회설의공보부에서는 지난여름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바쁜 자매부락 맥금2리를 대상으로, 하기봉 사활동에 나선 간호학생 16명을 참가시켜 4주간의 탁아사업을 실시했다. (7.29~8.24)

서울시내 8개교에서 참가한 이들 16명은 섭외부가 주관하는데 따라 1팀을 4명씩으로 구성, 1주일씩 교대로 탁아지도봉 하였으며 탁아대상은 취학, 미취학 아동을 합해서 68명으로 학습지도, 정결지도, 오락지도등에 주력하였다.

다음은 일주일간의 산경험을 통해 봉사활동을 기록한 "탁아일지" 한편이다. 여러학생들의 좋은 일지를 지면 사정으로 다 게재치 못함을 밝히둔다. <원점자주>